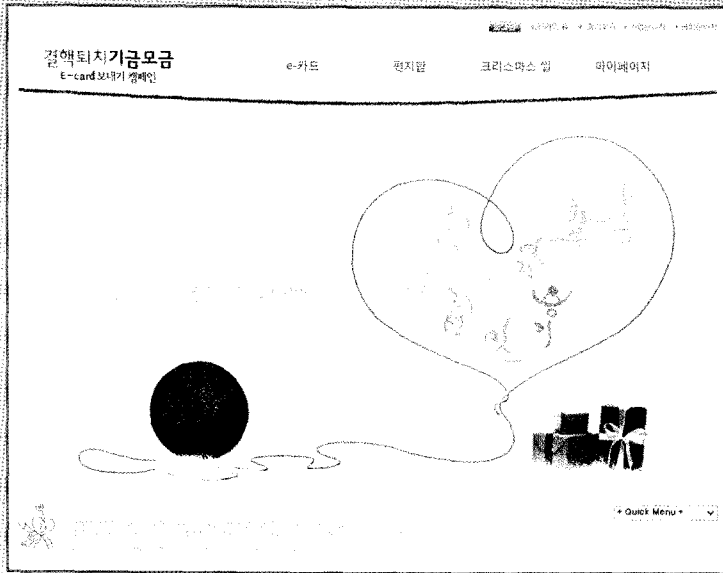


“ecard.knta.or.kr”

크리스마스 씬을 e-card로 만나보세요!



한글사랑 메시지

진실 | 솔직해야 깊어지니까

행복 |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나눔 | 기쁨이 배가 되니까

용기 | 또 다른 세상을 보니까

희생 | 나로 인해 변해지니까

미소 | 마주보면 흐뭇하니까

희망 | 늘 새롭게 보이니까

열정 | 나를 흥분시켜 주니까

배려 | 고마움으로 물드니까

화목 | 서로에게 따뜻하니까

그림 너머 풍경

■

박희숙 화가, 미술칼럼니스트

크리스마스를

담은 그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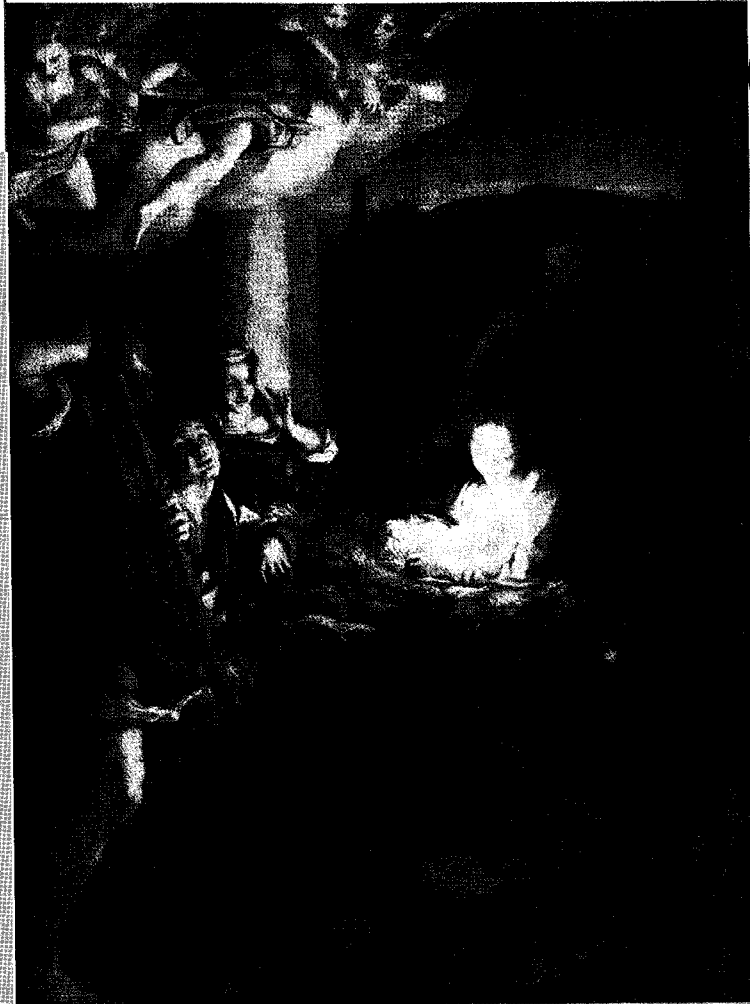
12월의 도심은 화려하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 형형색색의 전등이 도심을 수놓고 있어서다. 화려한 도심 곳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식막한 겨울이러기보다는 환상의 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크리스마스는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날이다. 예수 탄생 이야기를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 코레조의 <거룩한 밤>이다. 이 작품은 마구간에서 성모 마리아가 해산한 직후 아기 예수를 둘러다보고 있는 장면을 표현했다.

화면 왼쪽 위 천사들은 구름을 타고 쏟아지는 빛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다. 루카 복음서에 따르면 천사들은 밤새워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주를 찬양했다.

화면 중앙 성모 마리아는 행복한 표정으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를 안고 있으며 성모 마리아 뒤에 요셉이 당나귀와 함께 있다. 성모 옆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는 하녀는 빛에 눈이 부셔 아기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하녀는 고개를 돌려 앞에 있는 목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목자와 지팡이는 그가 한밤중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기 위해 바쁘게 왔음을 나타내며 그 옆에 있는 양치기 개는 구유에 코를 대고 있다.

이 작품에서 빛은 예수의 탄생을 상징하고 있으며 빛은 화면 왼쪽의 해산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분주함과 화면 오른쪽 아기 예수 탄생을 고요한 환희 사이에 중심의 역할을 한다.



〈거룩한 밤〉 1533년 경 나무에 유채, 드레스덴 미술관 소장



〈성 니콜라스 축제〉 1645-8년 경
캔버스에 유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 소장

크레조(1490~1534)의 이 작품은 빛을 통해 주제를 한층 더 깊게 표현해 유럽 회화에서 최초로 거룩한 밤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래는 이탈리아 중북부 레지오넬에 밀리아 시에 있는 산 프로스페로 성당의 한 개인 예배당 제단화로 제작되었다.

크리스마스 날 어린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산타클로스다. 산

타클로스는 성 니콜라스 축일 전야의 의미와 북유럽의 신화에 나오는 할아버지의 이미지가 합쳐져 탄생한 가상의 인물이다.

성 니콜라스는 해적에게 인질로 잡혀 있는 어린이와 선원들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주고 구출해 어린이와 선원들의 수호성인이 되었다.

12월 6일이 성 니콜라스 공식 축일이지만 12세기 프랑스의 수녀들이 축일을 맞아 하루 전날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한다. 가난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풍습을 네덜란드인들은 '산타 클레사'라 불렀다.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이 북미로 이주하면서 해마다 성 니콜라스 축제를 열었다. 성 니콜라스 축일 전야에 산타클로스가 1년 동안 착한 일을 한 어린이에게 골목으로 들어와 선물을 주었다는 풍습과 상술이 만나 의미가 확대되었으며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인물

이 되었다.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표현한 작품이 스텐의 <성 니콜라스 축제>다.

화면 앞의 어린이가 황금색의 명절 옷을 입고 선물로 받은 세례 요한의 인형을 꼭 안고 있다. 세례 요한은 어린이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성인이다. 아이의 왼쪽 팔에 들려 있는 양동이에는 장난감과 군것질거리가 들어 있다.

화면 왼쪽 울고 있는 남자가 이 집안의 큰 형이다. 뒤에 서 있는 해녀가 큰 형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다. 산타클로스는 나쁜 일만 한 어린이의 신발에는 선물 대신 너도 밤나무 가지를 놓아두고 가는데, 큰 형은 한 해 동안 나쁜 일만 했기 때문에 그의 신발에는 회초리밖에 없었던 것이다. 앞에 있는 동생은 손가락질하며 형을 놀리고 있지만 동생 뒤에 있는 할머니가 커튼 뒤를 가리키고 있다. 큰 형의 진짜 선물이 커튼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안 스텐(1626~1679)의 이 작품은 17세기 네덜란드 황금 시기에 유행하던 풍속화로 화면 왼쪽 탁자 옆에 있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형태의 빵은 네덜란드에서 성 니콜라스 축제나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다. 탁자 끝에 있는 동전을 넣은 사과는 손님들을 위한 것이다. 동전이 들어 있는 사과는 행운을 상징한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즐기 위한 날만은 아니다. 예수의 가르침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 아스케도니의 <자애>다.

맨발에 냄비를 걸친 형제들에게 젊은 여인이 빵을 나누어 주고 있다. 왼쪽에 지팡이를 짚은 소년의 눈동자가 허공을 향해 있는 것은 그가 맹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빵을 받



(좌) 1611년 캔버스에 유채, 나폴리 카포디몬테 미술관 소장

고 있는 소년이 고개를 들어 젊은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다. 젊은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스키프로 눈동자를 거의 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조그만 행복에 나누어 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화면 오른쪽 밝은 표정의 어린 아이는 어머니나 형제에게 관심이 없고 호기심에 찬 눈동자로 앞을 바라보고 있다. 젊은 여인과 어린아이의 맨발은 모

자 역시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르톨로메오 스캐도니(1578~1615)의 이 작품은 부유층에게 자선을 촉구하기 위해 그려졌는데 상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자선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그려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는 가난한 사람들을 한 번 더 뒤돌아 보는 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